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7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2월 15일

발 의 자 : 조상호,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제리, 김화숙,  
노승재, 문영민, 문장길,  
박기재, 송도호, 송명화,  
양민규, 이경선, 이광성,  
이동현, 이정인, 이태성,  
장상기, 전병주, 최정순  
의원(24명)

##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며 전면 등교 수업을 가능케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함

## 2. 제안이유

- 학생들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지 못했고, 이는 학습결손, 학급격차, 중위권 붕괴 등의 사회 문제로 이어짐

서울특별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전면 등교 교육을 보장하여 빠르게 학교를 정상화 하는데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규정 법제화를 촉구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4. 이송처

-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위드 코로나와 일상회복의 첫 걸음으로 전면 등교 수업이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코로나19의 위기가 교육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최후의 순간까지 전면 등교 수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발생과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비추어 볼 때 전면 등교 수업은 언제 중단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다. 교우 관계를 기초로 공동체 의식과 사회화를 배우는 첫 걸음이자 전인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은 물론, 원격 비대면 수업의 확대로 학습 결손과 가정 환경에 따른 학습 격차가 발생되며 기초 학력 부족과 중위권 붕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학교 정상화는 한시바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며 전면 등교 교육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나아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중심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7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5명이다.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육현실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족과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장기적 인력 유희 문제 등을 이유로 교사 신규채용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꾸준히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관한 논의는 이미 공론화 되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수많은 교원단체와 교사들 역시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일 요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민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규정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대안 반영 과정에서 20명이라는 수치를 못 박는 대신 ‘적정 학생 수’ 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개정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교육 회복과 학교정상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명시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정부기관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대비한 교육현장 개선 중장기 로드맵과 실천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라.

2021. 12. 1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